

〈일반논문〉

4세기 백제의 건국신화 정립과 부여씨*

정 지 은 **

〈목차〉

- I. 머리말
- II. '부여' 명칭 표기로 본 백제 동명신화와 해부루 신화
- III. 동명의 수용과 백제 왕성 扶餘씨의 등장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4세기 백제의 건국신화를 분석하고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 백제의 건국신화와 왕성 부여씨의 성립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흔히 건국신화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백제의 경우 현전하는 건국신화가 여럿 존재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백제 건국신화에는 그 출처로 부여와 고구려를 언급하는데, 사료를 분석한 결과, 온조가 동명의 아들이라는 인식은 고려 시대의 인식이며, '夫'와 '扶'의 차이를 통하여 백제와 고구려가 각각 독자적으로 부여의 동명신화를 받아들였음을 엿볼 수 있다.

백제에는 건국신화로 해부루 신화와 동명형 신화가 전해지고, 또 백제의 王姓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2029).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으로는 解씨와 [扶]餘씨가 언급된다. 해씨의 경우 해부루 신화의 해부루에서 따온 성일 가능성이 크다. 동명의 성은 부여가 아니지만, 동명신화가 부여의 신화라는 점에서 王姓과 건국신화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해부루 신화가 동명신화에 선행하는 건 대다수 연구자가 공감한다. 백제는 처음에 해부루 신화를 건국신화로 하고 해씨를 왕성으로 삼다가, 어떤 이유에서 부여씨로 바꾸고 동명신화를 수용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제 관계에서의 유리함 때문이었다. 집단의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부루 신화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당시 부여와 동명(Tümen)은 그 위상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 본래 동명은 부여만이 아닌 중앙유라시아에 널리 퍼진 이야기였으나, 『論衡』을 통하여 부여가 중주국이 된 셈이다. 부여는 前燕이 왕을 사위로 삼고, 後燕·南燕에서 부여씨들이 고위 관직에 오를 정도로 당시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위상이 강하였다.

또 이 3~4세기 무렵 前燕을 비롯한 유목민족 집단은 자신의 姓을 그들의 기원에서 따 한자식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胥과의 교섭이 목적이었다. 부여라는 성 역시 이때 등장하였으며, 그 성의 연원 역시 유목민족 집단의 성과 통한다. 이러한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백제는 4세기 중국 동북 지역과의 연결 속에서 부여씨를 왕성으로 삼고 나아가 동명신화를 채택하였다. 특히 근초고왕대에 국가의 정치체제를 정비하는 일환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 주제어

백제, 부여, 4세기, 건국 신화, 동명신화, 부여씨, 해씨, 성씨, 동명, 해부루

I. 머리말

백제의 건국 신화는¹⁾ 다양한 이야기가 전한다. 『三國史記』 권23, 온조왕 원년 조에는 본문에 고구려 鄒牟[주몽]의 아들 溫祚의 이야기가, 같은 조 세주에는 北扶餘 解扶婁의 庶孫 優台的 아들 沸流가, 세주에 인용한 중국 정사 백제전에는 東明의 후손 仇台가 등장한다. 건국 신화는 국가(왕실)의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중요한 기록이지만, 백제의 경우 건국 신화만으로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처음에는 백제 스스로 부여 출신이라고 한 기록과²⁾ 함께 『삼국사기』를 신뢰하여 백제를 건국한 주체가 ‘부여계 고구려 流移民’이라는 데에 오랜 기간 이견이 없었다.³⁾ 나아가 비류 집단[북부여계]과 온조 집단[고구려계]의 왕실교대론이 등장한 뒤,⁴⁾ 비류 집단을 ‘解’씨로, 온조 집단을 ‘扶

1) 백제의 경우 여러 논문에서 ‘설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나, 본문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통일성을 위해 ‘신화’로 표기하겠다.

2) 『魏書』 列傳, 百濟, “臣與高句麗源出夫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3) 다만 백제의 건국 시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三國史記』 권23, 온조왕 원년 조에 의하면 서기 전 18년에 백제를 건국하였다고 하는데, 『三國志』 권30, 韓傳에 의하면 3세기까지 백제의 존재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였다. 『三國史記』의 기록을 부정하고 『三國志』와 『日本書紀』를 근거로 백제사를 재구성하는 태도는 津田左右吉 이래 대부분의 일본인 사학자들이 수용하였다. 3세기 말~4세기 초에 중국으로부터 남하한 부여족 일파가 백제를 세웠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4세기 초까지의 백제사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고이왕(재위 234~286)이 사실상의 백제 왕실 시조라고 본 이병도(『三韓門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1936) 이래 백제가 늦어도 3세기 중엽에는 상당한 세력을 이룬 국가였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김기섭,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 177~192쪽을 참조.

4)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 3, 1975 ; 이기동, 『百濟 王室交代論

餘'씨로 보는 견해는⁵⁾ 오랫동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백제의 건국 신화도 고구려 동명 신화의 연결·변형이⁶⁾ 아니라 부여 동명 신화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연구⁷⁾ 이후, 부여와 고구려를 분리하면서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각 계통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이와 연결하여 고구려에 대항하는 백제의 부여 계승의식이 강조되었고,⁸⁾ 백제의 계통성이 부여인지 고구려인지, 부여라면 왜 고구려가 등장하는지 탐색하는 연구도 전개되었다.⁹⁾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삼국사기』 초기 기사의 불신과 맞물려 중국 사서에 시조로 나오는 仇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¹⁰⁾ 최근에는 『삼국사기』 기록과 구태를 연결하여, 모든 기록을 정합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견해들은 북쪽에서 세력이 남하하였다는 건국 신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수용하면서도 각각 공손 정권과 혼인한 부여족 일파,¹¹⁾ 동부여 대소왕이 받은 고구려 관작 于台的 의인화,¹²⁾

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1981.

- 5) 노중국,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한국사론』 4, 1978.
- 6) 金哲垓,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 7)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1981 ; 「百濟 建國神話의 原形과 成立背景」, 『백제연구』 20, 1989.
- 8) 이종태, 「百濟 始祖仇台廟의 成立과 繼承」, 『한국고대사연구』 13, 1998 ; 김병곤, 「中國 史書에 나타난 百濟 始祖觀과 始國者 仇台」, 『한국고대사연구』 46, 2007 ; 정재운, 「구태 시조설의 성립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등.
- 9) 임기환, 「百濟 始祖傳承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백제연구』 26, 1998 ; 박현숙, 「백제 建國神話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등.
- 10) 윤용구, 「仇台의 백제건국기사에 대한 재검토」, 『백제연구』 39, 2004 ; 김병곤, 「記錄에 나타난 百濟 始祖 및 建國者의 史的 位相과 實態」, 『백제연구』 47, 2008 등.
- 11) 김성한, 「백제의 건국과 구태」, 『역사학연구』 56, 2014.
- 12) 이장웅, 「백제 시조 구태·비류 전승의 성립과 고구려·공손씨의 관계」, 『백제문화 55』, 2016 ;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17.

고구려 비류부로¹³⁾ 그 주체를 다르게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백제의 처음을 파악하는 데 건국 신화를 이용하면서도 정작 ‘부여의 시조’ 동명에 관해서는 관심이 낮았다. 백제가 부여족이었기 때문에 부여 동명 신화를 받아들인 건 당연하여서, 고구려와의 연관성만이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같은 종족이라 할지라도 동일 인물이 시조로 등장하는 건 상당히 위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다.¹⁴⁾ 게다가 건국 신화는 漢族의 黃帝를 자신들의 시조로 내세운 北魏의 지배층처럼,¹⁵⁾ 정치적인 이유로 비현실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허구도 삽입할 수 있다.¹⁶⁾ 당대의 상황과 당대인, 특히 지배층의 의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도 부여를 계승하는 국가가 백제 외에 고구려, 豆莫婁 등 여럿 보이는 점은 부여와 동명에 특별한 위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백제의 한성기 도성으로 추정하는 송파구 일대의 백제유적에서 아직 부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는 견해가¹⁷⁾ 등장하여 남한 ‘부여족’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지 않는 경향과 함께, 관련 연구가 심화하는 추세이다.¹⁸⁾ 이 입장에서 백제의 부여 계통을 부정할 경우, 백제가

13) 조영광,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선사와 고대』 53, 2017.

14) 시차가 있지만, 『新撰姓氏錄』에는 7~8세기 일본의 백제계 유민들이 자신의 시조를 백제왕으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肖古王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왕계가 정립한 이후임에도 이러한데 특정 인물이 여러 국가의 시조로 등장하는 것은 대단한 위상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15) 園田俊介, 「北魏·東西魏時代における鮮卑拓跋氏(元氏)の祖先伝説とその形成」, 『史滴』 27, 2005.

16)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271~273쪽.

17) 권오영, 「백제의 국가 형성과 부여의 관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18.

18)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백제학연구총서 쟁점 백제사 17)』, 한성백제박물관, 2020.

왜 부여 동명신화를 선택하였는지, 후에 南扶餘로 국호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어느 쪽의 견해이든 백제가 부여 동명을 시조로 삼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백제 초기의 국가적 정체성을 되짚어 백제가 부여 동명을 자신들의 시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왕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는 건국 신화와 王姓이라고 생각한다. 백제의 경우, 흥미롭게도 『삼국사기』에 두 개의 건국 신화와 왕성이 등장하고 있어, 양자가 연관이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다. 이에 2장에서는 기록 속 백제 시조(출자)와 각 건국 신화의 선후관계를 살펴 동명의 존재를 다시금 확실시하고, 고구려 건국 신화와와의 관계를 확인해보겠다. 고구려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고구려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만큼 선행 연구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백제 시조로 등장하는 동명 및 그와 연관 있는 듯한 왕성 ‘부여’씨의 등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백제가 건국 신화 및 성씨를 정립한 시기를 특정하여 초기 백제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구체화하고자 한다.

II. ‘부여’ 명칭 표기로 본 백제 동명신화와 해부루 신화

백제의 건국 신화는 기록마다 상이한 점이 있어 명확히 그리기 어렵다. 기록 속 東明廟를 통해 東明이 시조로서 중요하였던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그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 해부루의 존재나 동명과 부여·고구려의 관계 등이 사서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문제이다.

게다가 『삼국사기』를 비롯한 관련 국내 사료는 모두 고려 이후 편찬되어 백제의 존속기와 상당한 시차가 있다. 백제 존속기와 가깝게 편찬된 관련 사료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작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백제의 건국 신화를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1. ①百濟의 始祖 溫祚王은 그 아버지가 鄒牟, 혹은 朱蒙이라고 하였다. 北扶餘로부터 난을 피해 卒本扶餘에 이르렀다. 扶餘王이 아들이 없어, … 이윽고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 《①일설에, 시조 沸流王은 그 아버지가 優台로 北扶餘王 繼扶婁의 庶孫이었고, 어머니는 召西奴로 卒本 사람 延陀勃의 딸이었다.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비류라 하였고, 둘째는 온조라 하였다. 우태가 죽자, 倭本에서 과부로 지냈다. 후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前漢 建昭 2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倭本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고구려라 하였다. … 어느 주장이 옳은지 알 수 없다[未知孰是].》(『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¹⁹⁾

A-2. 海東古記를 살펴보면, 어떤 곳은 始祖 東明이라 하고, 어떤 곳은 始祖 優台라고 한다. 『北史』 및 『隋書』에서는 모두 이르기를, “동명의 후예로 仇台가 있어, 帶方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는데, 곧 시조가 구태임을 이른다. 그러나 동명이 시조임을 사적이 명백하여, 그 외에는 믿을 수 없다. (『三國史記』 卷32, 雜誌 第1, 祭祀, 高句麗·百濟 세주)²⁰⁾

19)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 未幾扶餘王薨, 朱蒙嗣位. … 《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繼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陀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餘, 以前漢建昭二年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 號高句麗. … 未知孰是.》”

20) “按海東古記, 或云始祖東明, 或云始祖優台. 北史及隋書皆云, ‘東明之後, 有仇台, 立國於帶方.’ 此云始祖仇台. 然東明爲始祖事迹明白, 其餘不可信也.”

A-3. 古典記를 살피건대, 東明王의 셋째 아들 溫祚는 前漢 鴻嘉 3년 癸卯에 卒本扶餘에서 慰禮城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고 칭하였다.”(『三國史記』 卷37, 雜誌 第6, 地理4 百濟)²¹⁾

기사 A는 모두 『삼국사기』 기사이지만 본기[A-1], 제사지[A-2], 지리지[A-3]에서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처럼 동일 서적 내의 상이한 내용과 A-1의 마지막에 ‘未知孰是’라는 문구를 보면, 『삼국사기』만으로는 백제에서 통용되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내용 상 적어도 고려 시대에는 동명이 곧 주몽이고 온조는 그의 아들이라 보아, 고구려에서 백제의 시조가 나왔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사기』보다 시기는 늦지만, 『삼국유사』를 통해 건국 신화와 같은 옛 기록에 대한 고려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다.

B-1. 古記에 이르기를, 前漢書에 宣帝 神爵 3년(B.C. 59) 壬戌 4월 8일에 天帝가 [大遼 醫州 지역에 있는] 訖升骨城에 다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와 도읍을 세우고, 王國의 이름을 北扶餘로 칭하고 스스로 解慕漱라 불렀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扶婁라 하고 解씨를 성으로 삼았다. 왕이 후에 上帝의 명으로 東扶餘로 移都하고, 東明帝가 북부여를 계승하고 일어나 卒本州에 도읍을 세우고 卒本扶餘가 되니, 고구려의 시조이다(『三國遺事』 紀異 卷1, 北扶餘).²²⁾

B-2. 『國史』 「高麗本記」에 이르기를, 시조 東明聖帝의 姓은 高씨이고 이름

21) “按古典記, 東明王第三子溫祚, 以前漢鴻嘉三年癸卯, 自卒本扶餘, 至慰禮城, 立都稱王.”

22)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在大遼醫州界]乘五龍車立都, 稱王國號北扶餘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移都于東扶餘, 東明帝繼北扶餘而興立都于卒本州爲卒本扶餘, 卽高句麗之始.”

[諱]은 朱蒙이다. 앞서 北扶餘 왕 解夫婁가 이미 東扶餘로 자리를 피했으며, 夫婁가 죽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太伯山 남쪽 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얻어 그녀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나는 河伯의 딸로 이름은 柳花인데, 여러 동생들과 놀던 중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나를 熊神山 아래 鴨綠가의 집 안으로 유인하여 사통하고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檀君記에 이르기를, [단]군이 西河 河伯의 딸과 관계하여[要親]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夫婁라 하였다고 한다. 지금 이 기록에 의하면 解慕漱가 하백의 딸과 통하여 후에 朱蒙을 낳았다고 한다. 단군기에 이르기를,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하였다고 하니, 부루와 주몽은 異母兄弟이다.] (『三國遺事』 紀異 제1, 高句麗)²³⁾

기사 B는 고구려 시조 주몽[東明帝]과 관련된 기록이다. 양 기사에서 해부루와 주몽의 혈연관계에 모순이 있는데도, 同名을 근거로 부루와 주몽을 형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름 외에 둘을 형제라 보는 별다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오류들은 같은 이름이 등장하였을 때 별개의 인물 또는 윤색이라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 遺民이 많이 건너간 일본에서 9세기 초에 편찬된 『新撰姓氏錄』에는 백제의 시조 ‘都慕[동명]’와 고구려의 시조 ‘鄒牟[주몽]’가 명확히 구분되어 등장한다. 부여·고구려·백제의 건국 신화가 비슷한 것은 부여계가 공유하던 東明型 신화가 파생된 것이라는 결

23) “國史高麗本記云, 始祖東明聖帝姓言氏諱朱蒙. 先是北扶餘王解夫婁既避地于東扶餘及夫婁薨金蛙嗣位. 于時得一女子於太伯山南優渤水間之, 云, 我是河伯之女名柳花. 與諸弟出遊時有一男子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綠邊室中知之而往不返. [檀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名曰夫婁. 今據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 檀君記云, 產子名曰夫婁, 夫婁與朱蒙異母兄弟也.]”

과는 일찍이 도출된 바 있다.²⁴⁾ 9세기까지 백제와 고구려 시조가 구분되고 있는 점과 고려 시대의 위와 같은 인식을 생각하면, ‘고구려 동명’의 아들 온조라는 인식은 주몽의 東明聖王이라는 명칭과 양자가 부여계라는 기록이 합쳐져 후대에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때 오히려 걸리는 존재는 해부루이다. 북부여 왕 해부루는 B-2에서는 고구려 주몽의 형제로 나오고, A-1-⑥에서는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인 우태의 조상으로 등장하는데, 이후 내용이 고구려와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국사기』 권13, 동명성왕 원년 조에서는 해부루가 동부여로 옮겨가기 이전에 해모수가 그 지역을 다스렸다고 기록하여, 해부루와 해모수, 주몽이 모두 타인으로 등장한다.²⁶⁾ 반면 『삼국사기』 온조왕 조 세주[A-1-⑥]에는 해모수가 등장하지 않고, 시조인 온조는 북부여왕 해부루의 핏줄임을 명시하고 있다. 양국의 신화에서 해부루의 위치나 비중이 이 정도로 다르다면, 선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²⁷⁾

-
- 24) 金哲埈, 「백제사회와 그 문화」,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1981; 신동하,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引用資料에 관한 一考」,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 25) 통일 신라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를 의도적으로 하나로 묶었거나 ‘동명=주몽’으로 오인하여 백제 신화를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박현숙, 「백제 建國神話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고구려에서도 주몽과 동명을 동일인으로 보는 인식이 當代에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참고된다(임기환, 「동명신화의 전개와 변용」,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8, 141~156쪽).
- 26) “先是, 扶餘王解夫婁, 老無子, 祭山川求嗣. 其所御馬至鯤淵, 見大石, 相對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 王喜曰, ‘此乃天賚我令胤乎.’ 乃收而養之, 名曰金蛙. 及其長, 立爲太子. 後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동명), 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曰迦葉原, 土壤膏腴宜五穀, 可都也.’ 阿蘭弗遂勸王, 移都於彼, 國號東扶餘. 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 及解夫婁薨, 金蛙嗣位.”
- 27) 해모수-해부루 신화가 고구려와 별개로 백제에도 애초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한편 ‘부’의 표기 변화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6세기까지 작성된 중국 정사에서 東夷傳에 부여가 실려있는 경우, 대부분 ‘夫餘’가 사용되고 있으며 ‘扶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양자 모두 ‘부여’를 음차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漢書』, 『後漢書』는 모두 ‘夫餘’로만 작성하였고, ‘扶餘’는 『三國志』에서는 濊貊과 짝을 이루어서만 나오며²⁸⁾ 『晉書』에서는 慕容載記에만 등장한다.²⁹⁾ 동이전에 부여가 없는 『宋書』에는 백제왕의 姓으로써의 ‘扶餘’만 등장한다. 『梁書』는 고구려 건국 신화에, 『周書』는 고구려와 백제의 출자와 관련하여 ‘夫餘’만 보인다. 『魏書』의 경우 건국 신화나 백제 개로왕 상표문과 같은 出自에 ‘夫餘’로 나오고,³⁰⁾ ‘扶餘’는 高宗 文成帝 太安 3년의 조공 기사 1건과³¹⁾ 두막루의 ‘북부여’ 출자가 유이하다.³²⁾ 이외에 등장하는 ‘扶餘’는 모두 백제의 王姓이다. 즉, 사료에서 ‘夫餘’와 ‘扶餘’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扶餘’의 경우 고구려와는 연결고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부)여씨가

참고 된다(임기환, 「동명신화의 전개와 변용」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8, 161~166쪽).

- 28) 『三國志』 권2, 文帝 延康 원년(220), “濊貊·扶餘單于·焉耆·于闐王皆各遣使奉獻.”; 권26, 牽招, “忠曰, 我遼東在滄海之東, 擁兵百萬, 又有扶餘, 濊貊之用. 當今之勢, 彊者爲右, 曹操獨何得爲是也.”
- 29) 특히 후술한 부여 북국 기사[E-1]의 경우 같은 내용이 慕容廆載記에서 확인되는데, 내용은 거의 같고 ‘부여’라는 글자만 다르게 확인된다. 『十六國春秋』와 『十六國春秋輯補』에서도 동일한 내용에 ‘扶餘’로 나온다. 현전하는 『十六國春秋』는 후대의 기록이라 비판적인 시각이 요구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하여 『晉書』나 『資治通鑑』보다 자세하게 기록된 에피소드가 확인되고, 또 다른 저서와 사건의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 『十六國春秋』가 더 타당한 부분도 있어 어느 정도 참고가 된다.
- 30) 「광개토왕릉비문」에도 ‘夫餘’, ‘北夫餘’로 기록되어 있다.
- 31) 『魏書』 권5, 高宗 文成帝, 太安 3년(457), “是月(12월), 于闐扶餘等五十餘國各遣使朝獻.”
- 32) 『魏書』 권100, 豆莫婁, “豆莫婁國, 在勿吉國北千里, 去洛六千里, 舊北扶餘也.”

처음 등장한 慕容鮮卑, 그리고 濊貊 및 백제 등과 관련하여서만 등장하고 있다.

이후에도 ‘夫餘’는 『隋書』의 본기 1건 및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 신화와 관련하여 나오고, ‘扶餘’는 백제 王姓과 扶餘道가 있다.³³⁾ 그런데 『舊唐書』(10c), 『新唐書』부터 백제 및 고구려전에만 나오는데, 건국 신화(동명신화) 내용이 빠진 탓인지 ‘扶餘’만이 확인된다. 또 백제·고구려를 부여 출자라 기록하더라도 둘을 한 세트처럼 묶지 않은 앞의 기록들과 달리 “백제”도 [本‘亦’扶餘之別種]와³⁴⁾ 같이 양국이 같은 계열로 묶이는 느낌을 주는 서술의 변화도 생긴다. 『日本書紀』(8c)에서도 ‘扶餘(=백제)’만 확인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부여는 모두 ‘扶餘(北扶餘·東扶餘)’인데, 특히 고구려 관련 기록에서 ‘扶餘’로 나오는 건 고구려 이후의 기록뿐이며, 「광개토태왕릉비문」과 같은 고구려 존속기 자료에는 ‘夫餘’, ‘北夫餘’, ‘東夫餘’로 적혀있다. 즉, 6~7세기 이후에 모든 부여가 ‘扶餘’로 통합되어 가는 양상이다. ‘해부루’의 경우도 고구려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解夫婁’라고 적은 반면, 백제 기록에는 ‘解扶婁’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고구려는 ‘扶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멸망 이후 동명 신화에서 파생된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 신화가 연결되거나 하면서 고구려 관련한 내용의 부여도 ‘扶餘’로 바뀌었을 확률이 높다.³⁵⁾ 즉,

33) 『隋書』 권4, 煬帝, 大業 8년(612), “今宜授律啓行, 分麾屈路, 掩勃解而雷震, 歷夫餘以電掃. 比戈按甲, 誓旅而後行, 三令五申, 必勝而後戰. 左第一軍可鏤方道, 第二軍可長岑道, 第三軍可海冥道, 第四軍可蓋馬道, 第五軍可建安道, 第六軍可南蘇道, 第七軍可遼東道, 第八軍可玄菟道, 第九軍可扶餘道, 第十軍可朝鮮道, 第十一軍可沃沮道, 第十二軍可樂浪道. 右第一軍可黏蟬道, 第二軍可含資道, 第三軍可渾彌道, 第四軍可臨屯道, 第五軍可候城道, 第六軍可提奚道, 第七軍可踏頓道, 第八軍可肅慎道, 第九軍可碣石道, 第十軍可東曠道, 第十一軍可帶方道, 第十二軍可襄平道.”

34) 『舊唐書』 권199上, “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 … 百濟國, 本亦扶餘之別種.”

35) 고구려 후기 『留記』를 『新集』으로 정리하면서 시조 鄒牟王은 東明聖王, 儒留王

처음에 백제는 ‘扶餘’, 고구려는 ‘夫餘’를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며,³⁶⁾ 이는 양국의 건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부여가 인과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간접적인 근거가 아닐까 싶다.³⁷⁾

한편 백제 건국 신화의 시조 해부루와 시조 주몽(동명의 착오)은 각 이야기의 흐름상 해부루-비류가 선행하고, 동명-온조가 뒤를 잇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해부루-우태-비류 신화가 ‘미추홀에 살았다’로³⁹⁾ 끝나고, 온조 신화에는 비류 사후가 언급되며 미추홀의 백성들이 온조에게 귀부하는⁴⁰⁾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정사 백제전에는 동명

은 瑠璃明王, 大朱留王은 大武神王과 같은 아화된 명칭으로 바꾸고, 시조의 출자도 동부여로 바꾸었다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백제정치사』, 2018, 114~115쪽). 이를 참고한다면 이때 夫餘를 (東)扶餘로 쓰기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언급해볼 수 있겠다.

- 36) 백제와 관련하여 ‘夫餘’는 모두 중국 정사 백제전의 동명 신화에서만 등장하며, 예외인 『周書』의 왕성 기사도 부여 출자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백제와 연이 깊은 남조의 역사서인 『梁書』, 『南齊書』에는 부여가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宋書』에만 백제의 왕성으로 扶餘가 확인된다. 중국 사서 속 백제 관련 ‘夫餘’는 동명 신화를 인용하며 중국 사람들이 선택한 글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37) 다만 추모가 온조의 아버지가 된 것은 東明이라는 이름에 의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해부루-우태-비류왕’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고구려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고구려 계통 이주민이 해부루 신화와 함께 남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비류부 세력이 내려와 고이왕계를 축출하였다고 보는 견해(조영광,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선사와 고대』 53, 2017)가 대표적이다. 한편 2~3세기 고구려에게 멸망한 동부여계 세력이 내려와 백제 왕실을 차지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장웅, 「백제 시조 구태·비류 전승의 성립과 동부여·고구려·공손씨 정권」 『신화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17).
- 38) 金杜珍,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論」, 『국사관논총』 13, 1990, 67~90쪽.
- 39) 『삼국사기』 권23, 온조왕 원년 조 세주, “沸流謂第溫祚曰, “始大王避扶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 助成邦業, 其勤勞多矣. 及大王猷圖, 國家屬於孺留. 吾等徒在此, 鬱鬱如疣贅, 不如奉母氏南遊卜地, 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溟·帶二水, 至彌鄒忽以居之.”
- 40) 『삼국사기』 권23, 온조왕 원년 조,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溫祚都

신화만 언급되고 해부루 이야기는 배제된 채 갑자기 동명의 후손 仇台가 등장한다. 이 구태에 관하여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삼국사기』 온조왕 원년 조 세주에 나오는 비류의 아버지 優台와 『後漢書』에 나오는 부여의 왕자 尉仇台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⁴¹⁾ 남하한 집단에 의해 건국되어 부여를 계승하였다는 이야기에서 보면, 양자 모두 나름 타당한 추론이다. 특히 6~7세기 백제를 잘 반영하였다는 『주서』 등에 새로운 정보와 함께 등장하고 있어, 중국 사서에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도 구태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 남하한 집단 중 고구려계에 于台가 있어, 신화 내용 속 優台라는 이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⁴²⁾ 그래서 백제는 ‘優台’라고 말하였으나 중국에서 ‘仇台’로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그러나 『後漢書』 부여전의 동명 신화를 글자 하나하나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태의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중국인의 착각일 지라도] 부여와 백제를 연결해 생각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국 신화는 시대에 따라, 만든 이의 목적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백제의 건국 신화에 ‘해부루-우태-비류’와 ‘동명-온조’가 섞인 것이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 게다가 두 이야기는 큰 범주에서 보면 ‘부여계’에 속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므로 큰 이질감 없이 빠르게 섞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보통 이야기에 수정이 가해지면 일명 ‘최종 수정본’

河南慰禮城，以十臣爲輔翼，國號十濟。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沸流以彌鄒土濕水鹹，不得安居，歸見慰禮，都邑鼎定，人民安泰，遂慙悔而死，其臣民皆歸於慰禮。”

41) 구태에 관한 여러 견해는 ‘이장웅, 「백제 시조 구태·비류 전승의 성립과 동부여·고구려·공손씨 정권」,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17, 159~171쪽’ 참고.

42) 이장웅, 「백제 시조 구태·비류 전승의 성립과 동부여·고구려·공손씨 정권」,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17, 169쪽.

이 남는 게 자연스러운데, 백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정리한 기록은 소실되고 여기저기 산재한 이야기들이 남아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은 게 아닐까 싶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으나 상기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추론하면, 동명을 시조로 마무리하면서도 두 이야기가 함께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우선 백제에 남하한 집단 중에 해부루 신화와 동명신화를 간직한 집단이 있었으며, ‘부여’와 관련하여 이 두 집단이 같거나 적어도 크게 상이한 집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 王姓을 살펴보면,

C-1. 그 세계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扶餘를 姓으로 삼았다.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⁴³⁾

C-2. 또 『量田帳籍』에 의하면, “所夫里郡 田丁柱貼”이라고 하니 지금 말하는 부여군은 옛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백제왕의 姓이 扶氏여서 그렇게 칭했다. … 『삼국사기』 본기에서 말하기를, … 그 세계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解를 姓으로 삼았다. (『三國遺事』 紀異 제2, 南扶餘前百濟北扶餘)⁴⁴⁾

『삼국유사』(C-2)는 백제 건국신화를 『삼국사기』(C-1)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왕성을 삼은 이유를 부여 출자로 들고 문구도 똑같이 쓰면서도 『삼국사기』의 ‘扶餘’가 아닌 ‘解’씨로 적고 있다. 일연이 같은 조에서 『量田帳籍』을 인용하여 백제왕의 성이 ‘扶氏’였다는 기록과 『北史』 등의 중국 기록도 인용하고 있으므로, 왕성이 ‘(부)여’씨라는 기록도

43) “其世系, 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

44) “又按量田帳籍曰, ‘所夫里郡田丁柱貼’, 今言扶餘郡者復上古之名也. 百濟王姓扶氏故稱之. … 史本記云, … 其世系, 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解爲氏.”

보기는 했을 것이며 왕성이 복수로 전해지는 것도 인지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제 왕성을 ‘해’씨라고 기록한 자료 역시 있었고, 일연은 기록에 남은 여러 백제 왕성 중에 ‘해’씨가 옳다고 본 셈이다. 일연의 판단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일연이 전하는 복수의 왕성 중 해씨를 골랐다면, 그 시비 여부를 떠나 서적이든 당시의 인식이든 일연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⁴⁵⁾

만약 왕성이 해씨라는 기록이 있었다면, 현전하는 건국신화를 생각하였을 때 해씨는 신화 속 시조인 해부루에서 왔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주지하듯 『삼국사기』와 중국 정사 속 백제왕 이름은 ‘여○’이거나 아예 성 없이 기록한 경우도 있다. 4세기 근초고왕[餘句] 이후부터는 백제 왕성이 여씨로 등장하므로, 늦어도 4세기 이후에는 왕성을 (부)여로 사용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도 왕성이 해씨로 전해지는 기록이 있다면 왕의 성이 여씨로 확립하기 이전의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⁴⁶⁾ 이는 두 건국신화 중 해부루 신화가 선행하였으리란 추정과도 상통한다. 언제부터 해씨를 사용하였는지는 사료의 한계로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렵지만, 이상의 흐름에서 보면 늦어도 부여씨의 사용 시기와 비슷하거나 더 빨랐을 것이다.

그런데 왕족의 성과 관련하여 왕의 아우인 優壽, 優福 등의 ‘優’ 또한 姓으로 보기도 한다.⁴⁷⁾ 게다가 백제왕 중에 ‘여○’라는 이름이 있더라도

45) 『삼국유사』는 오류도 있지만, 북부여 조 인용의 「고기」와 같이 다른 서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해모수-해부루 신화의 원모습이 남아 있기도 하다(박기범,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북부여조 인용에 대한 분석을 실마리로 하여」, 『동북아역사논총』 34, 2011, 214~215쪽).

46) 해씨를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 왕위 계승 범위를 좁히는 과정(예를 들어 부자 상속)에서 부여씨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 백제의 王姓은 ‘비류 집단’의 解씨였다가 ‘온조 집단’이 이후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여족을 상징하는 扶餘를 성으로 삼았다는 견해(노중국,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한국사론』 4, 1978)가 있어 참고된다.

47)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 3, 1976, 134~137쪽.

斯摩나 牟太 등 별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연구 중에는 백제가 본래 일상적으로 성을 사용하지 않았고, 父子가 다른 성씨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성은 중국과의 교섭에서 그들과 문화적 동질감을 표현하여 외교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견해도 있다.⁴⁸⁾ 이러한 면들을 생각하면 백제 초기의 성씨는 꼭 혈연집단만을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⁴⁹⁾ 다만 왕성의 경우 [기록의 소급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여씨를 칭한 후에는 부자 상속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왕 계보의 정리는 곧 늦어도 이때는 시조를 정했다는 뜻이다. 복수의 왕성과 건국신화가 있고 그중 해부루 신화에서 해씨가 나왔다면, 또 다른 건국신화와 (부)여씨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때 백제의 또 다른 건국신화가 부여 동명신화의 변형이라는 점은 왕성과 건국신화의 연관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동명의 수용과 백제 왕성 扶餘씨의 등장

시조와 건국신화가 불변의 것이 아님은 언급하였지만, 그렇더라도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바꾸는 것이므로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국내 상황일 수도, 국외 상황일 수도 있다.

그 이유를 탐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 백제의

48) 박운선, 「백제 성씨문화의 이해」, 『백제학보』 29, 2019.

49) 시기도 지역도 다르지만, 일본의 우지[氏]와 카바네[姓]는 인류학적 개념의 부계제·모계제·쌍계제 등과는 다르며 혈연보다 정치적·사회적 원리가 중요하였다고 한다(이근우, 「고대 일본의 씨성 개념과 『신찬성씨록』」, 『한일관계사연구』 64, 2019). 백제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백제계가 많았던 일본 상황과 백제 왕족의 姓이 여러 개 등장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出自와 관련하여 백제가 중국의 북조와 남조에 서로 다른 출자를 내세웠다는 견해이다.⁵⁰⁾ 이 견해는 각각의 중국 정사 백제전의 내용을 근거로 백제가 북조에는 동명 신화와 함께 부여 출자관을 내세웠지만, 남조에는 마한 출자관을 내세웠다고 한다. 출자는 결국 시조 및 건국신화와 연결된다. 이 견해대로라면 해부루 신화는 무엇인지 설명이 어렵고, 건국신화가 변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정체성인데, 이것이 어떤 계기로 바뀌어 간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출자를 내세웠다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으므로 설명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

D-1. 백제는 그 선조가 부여에서 나왔다. … 또 이르기를, 신은 고구려와 기원이 부여에서 나와서, 선대에는 우의가 매우 두터웠습니다. (중략) (『魏書』 백제전)⁵¹⁾

D-2. 백제는 그 선조가 대개 마한에 屬國이며, 夫餘의 別種이다. 仇台가 처음 帶方에 나라를 세웠다. (『周書』 백제전)⁵²⁾

D-3. 백제는 대개 마한에 속하고, 索離國에서 나왔다. … 東明의 후손 仇台가 있으니 仁信이 두터워서 처음 帶方故地에 나라를 세웠다. (중략) (『北史』 백제전)⁵³⁾

D-4. 백제의 선조는 高麗에서 나왔다. … 東明의 후손 有仇가 있으니 仁信이 두터워서 처음 帶方故地에 그 나라를 세웠다.. (중략) (『隋書』 백제전)⁵⁴⁾

50) 윤용구, 「부여 구태와 마한 진왕-백제가 표방한 두 개의 출자관」 『초기 백제사의 재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18.

51) “百濟國, 其先出自夫餘. … 又云, 臣與高句麗源出夫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52)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

53) “百濟之國 蓋馬韓之屬也, 出自索離國, … 東明之後有仇台 篤於仁信 始立國于帶方故地.”

54) “百濟之先 出自高麗國, … 東明之後 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

D-5. 마한은 서쪽에 있고 54국이 있다. … 모두 78국이며, 伯濟는 그중 하나이다. (중략) (『後漢書』한전)⁵⁵⁾

D-6. 백제는, 그 선조인 東夷가 三韓國에 있었다. [삼한국은] 하나는 마한, 둘은 진한, 셋은 변한이다. 변한·진한 각 12국, 마한은 54국이 있었다. 대국은 만여 가, 소국은 수천 가, 총 십여만 호가 있고, 백제는 그 하나이다. 후에 점점 강대해져 여러 小國을 합쳤다.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遼東의 동쪽에 있었다. 쥬대에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략하자, 백제 역시 遼西·晉平 2군의 땅을 점거하고 스스로 百濟郡을 설치하였다. (중략) (『梁書』백제전)⁵⁶⁾

사료 D-1~4에서 백제는 夫餘에서 내려온 집단이 마한의 땅에 세운 나라라고 이해된다.⁵⁷⁾ D-5는 伯濟를 보통 百濟로 보므로⁵⁸⁾ 韓 출자가 된다. 그러나 D-5는 백제전이 아닌 한전의 기록에 伯濟를 특기한 것이며, 엄밀히 말해 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D-6이다. ‘백제는, 그 옛날[先] 東夷에 三韓國이 있었는데 … 그 하나이다.’라고 하여 백제의 선조가 마한(삼한)이라 서술한 것이고, 특히 삼한 이후 백제를 특기한 것은 백제가 남조와의 교섭에서 삼한의 대표를 자처하였기 때문이라 이해하였다.⁵⁹⁾ 그러나 D-6 후미의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遼東의 동쪽

55)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56) “百濟者, 其先東夷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辰韓各十二國, 馬韓有五十四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百濟即其一也. 後漸強大, 兼諸小國. 其國本與句驪在遼東之東. 晉世句驪既略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 自置百濟郡.”

57) 『隋書』의 경우, 이어진 내용에서 高麗王이 시기로 夫餘로 도망간 東明의 후손 仇台가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서술 구조상 찬자의 杜撰으로 파악하였다 (이종태, 「百濟 始祖仇台廟의 成立과 繼承」, 『한국고대사연구』 13, 1998).

58) 이도학, 「百濟初期史에 관한 文獻資料의 檢討」, 『한국학논집』 23, 1993.

59) 윤용구, 「부여 구래와 마한 진왕-백제가 표방한 두 개의 출자관」 『초기 백제사의

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연결하면, 백제는 [지금은] 삼한의 하나이지만 그전에 遼西 지역에 있었다는⁶⁰⁾ 의미이므로, 백제의 마한 출자를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술 흐름에서 보면 『주서』(D-2)와 『북사』(D-3)처럼 『양서』(D-6)의 마한 언급도 백제가 위치한 땅에 대한 설명일 수 있다.

기존의 견해처럼 마한을 강조한 서술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마한이 언급되기 시작한 『주서』, 『북사』, 『양서』는 모두 唐太宗~高宗 대에 작성되었다. 그래서 唐初에 형성된 공통적인 東夷傳 서술방식을 보인다.⁶¹⁾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잡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발전을 말살하려는 당 태종의 의도에 따라 양국은 아예 수록되지 않았고⁶²⁾ 마한만 있다.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보면, 백제와 관련하여 마한이 강조된 것은 唐代일 수도 있다. 앞서 487~488년에 南齊에서 편찬한 『宋書』만 해도 마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⁶³⁾

당시 사료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1~4가 북조와 그 뒤를 이은 왕조의 기록이며, 마한을 언급하면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18, 31~32쪽.

- 60) 해당 기사는 일명 '요서약유설'로 실제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 요서 지역에서 활약한 부여족과 백제를 연결한 남조의 오해 혹은 백제의 주장을 기록하였다는 견해나 백제가 요서 지역의 부여계 이주민 등과 교류한 정황이 과장되어 전달되었다고 하는 견해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재운,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 참조.
- 61)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白山學報』 3, 1967; 高柄翊, 「中國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1970; 朴性鳳, 『東夷傳 百濟關係 資料』(『韓國研究資料叢刊』제7집), 慶熙大傳統文化研究所, 1985.
- 62) 윤용구,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 151~155쪽; 이성규, 「韓國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受容」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59~60쪽.
- 63) “百濟國, 本與高驪俱在遼東之東千餘里, 其後高驪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서도 부여 혹은 동명이 등장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남조 사서의 내용을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시 남북조 모두 백제의 출자를 중국 동북 지역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위서』(D-1)의 개로왕 상표문이 가장 명확한 근거일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사료를 보았을 때, 특히 ‘동명’을 내세운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백제가 대외적으로 동명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명은 부여의 시조로 잘 알려져 있으나, 사실 비슷한 내용의 신화를 가진 민족이 적지 않다. 하늘의 기운이 닿은 처녀가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더러운 곳에 버려졌으나 동물이 보살펴주었다는 요소나 활쏘기의 명수인 영웅이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요소 등 많은 신화에서 전반적인 줄거리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동명 신화와 타 신화의 유사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언급된 바 있는데, 西晉의 張華가 쓴 『博物志』의 徐偃王 신화와 동명신화의 이야기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가 있으며,⁶⁴⁾ 주몽신화와 비교 연구는 더욱 많다.⁶⁵⁾ 그중에서도 ‘보편적 영웅문학’으로서 통구스계 민족들의 구비 영웅 신화와 유사성이 뚜렷하다는 점,⁶⁶⁾ 중앙유라시아의 나라들, 대표적으로 스키타이와 흉노, 고구려, 튀르크, 몽골 등에서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 요소가 같다는 언급이 주목된다.⁶⁷⁾

64) 박승변, 「夫餘國의 신화적 변동과 東明神話의 시·공간적 推移」, 『한국사학보』 37, 2009, 481~483쪽.

65) 서혜숙, 「켈트 신화와 한국 신화의 비교 연구: 영웅 쿠홀린과 주몽을 중심으로」 『한국에이츠저널』 34, 2010; 오은영, 「알퍼트쉬와 주몽신화의 영웅신화적 요소 비교 연구」 『중동문제연구』 10-2, 2011; 이지희, 『고구려와 탁발선비 시조신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2.

66) 최원오,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허저족의 이마칸 문학 비교」 『한민족 문화와 통구스족』, 동북아역사재단, 2019; 최원오, 「동북아 소수민족의 ‘메르겐 문학’의 관점에서 본 고구려 <주몽신화>의 신화적 성격」 『몽골학』 64, 2021.

67) 각 나라의 신화는 ‘크리스토퍼 벡위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 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47~65쪽을 참조.

여기서 언급되는 각 종족 혹은 나라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요소가 추가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동명신화와의 공통점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중앙유라시아의 ‘최초의 이야기’⁶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늘 신에 의한 처녀의 임신과 아이의 탄생 2. 정의롭지 못한 왕의 아이 제거 시도 3. 야생 짐승의 보살핌과 생존, 구조 4. 아이는 자라서 말과 활을 잘 다룸 5. 입궁하여 미천한 직책을 맡음 6. 시기로 인해 위험에 처하나 탈출에 성공 7. 맹세로 뭉친 전사들을 얻음 8. 폭군을 몰아내고 왕국에 정의를 다시 세우거나, 새로운 도시 혹은 왕국을 건설 |
|--|

이와 같이 [표 1]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유라시아 민족들 사이에 공통의 관념 혹은 인식으로 공유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때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匈奴 건국 관련 이야기의 주인공은 ‘冒頓’이지만, 그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君長으로 기록된 ‘頭曼’은 튀르키예어 혹은 몽골어 ‘Tümen’ 혹은 ‘Tou-man’, ‘tóumàn’을 고대 중국어에서 음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목특’ 역시 고대 중국어에서 영웅이란 뜻의 일반명사 ‘baytur’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⁶⁹⁾ 突厥[튀르키예] 초대 가한인 ‘土門’ 역시 ‘Tümèn’ 혹은 ‘Tümìn’의

68) 크리스토퍼 벡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64쪽의 내용을 축약하였다.

69) 크리스토퍼 벡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

음사이다.⁷⁰⁾ 부여 동명신화 속 索離國[Saklai]은⁷¹⁾ 스키타이[Scythai]와도 관련 있으며⁷²⁾ ‘東明(Tümen)’ 역시 부여-고구려어에서 나온 명칭이 아니다.⁷³⁾ 이 ‘Tümen’은 고대 튀르키예어로 숫자 일만을 뜻하며, 만 명을 이끄는 萬人長을 뜻하기도 한다.⁷⁴⁾ 즉 여러 민족이 같은 이야기, 적어도 동일한 이름을 자신들의 건국신화에 사용하고 있었으며,⁷⁵⁾ 이때 사용한 명칭은 수장을 뜻하는 일반명사일 가능성이 크다.⁷⁶⁾

려까지 -』, 소와당, 2014, 666~667쪽.

- 70) 크리스토퍼 백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671쪽.
- 71) 대부분의 사료에서 索離(NMan suōli)로 나오나, 사료에 따라 橐離로 나오기도 한다. 索(NMan suō, MChi ☆sak)과 橐(NMan tuó, MChi ☆tak)은 발음이 비슷하다(크리스토퍼 백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668~669쪽).
- 72) 스키타이는 ‘활 쏘는 사람’이라는 인도유럽어 ‘skud-o’에서 유래한 단어로 ‘索離’는 이와 관련이 깊다(크리스토퍼 백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652~653쪽).
- 73) 크리스토퍼 백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670쪽.
- 74) 크리스토퍼 백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671쪽.
- 75) 동북아 소수민족의 구비전승에서도 영웅의 이름은 각 민족의 언어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었으며, 나아가 ‘무리보다 뛰어난 사람, 영웅,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도 포함하였다. 대표적으로 ‘메르겐’을 들 수 있다. ‘주몽’ 역시 몽골어로 음역하면 ‘Jöbe-Mergen(정확한 射手)’가 되며, 『蒙古祕史』에서는 이 단어를 ‘소집단의 우두머리’라는 官稱으로 사용하였다(최원오, 「동북아 소수민족의 ‘메르겐 문학’의 관점에서 본 고구려 <주몽신화>의 신화적 성격」 『몽골학』 64, 2021, 67쪽, 81~82쪽).
- 76) 백제 건국 신화와 관련하여 ‘구태=동명’이며, 시조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견해도 있어 참고가 된다(강진원, 「백제 仇台廟의 성격과 부상 배경」 『동서인문학』 56, 2019, 134쪽). 다만 고대어나 음사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로,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옛 언어의 복원은 당시 사회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실마리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현 단계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최초의 이야기’는 시공간을 넘어 유라시아의 여러 집단에 퍼져 있었고, 특히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Tümen’이라는 명칭마저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널리 퍼진 이야기 중 정비된 현전하는 가장 빠른 기록이 바로 『論衡』의 부여 동명신화이다.

E. 北夷 橐離國王의 시비가 임신을 하자, 왕이 죽이려 하였다. 시비가 대답하기를, “계란과 같이 큰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후 아들을 낳자 돼지우리에 버렸으나 돼지가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 죽지 않았다. 다시 옮겨 마구간에 두어 말들이 짓밟아 죽도록 하였으나, 말 역시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 죽지 않았다. 왕이 [아이를] 하늘의 아이로 의심하니 그 어머니에게 데려가도록 하여 奴畜으로 삼고는, 이름을 東明이라 하였다. [자라서] 牛馬를 돌보게 하였다. 동명이 활을 잘 쏘자, 왕은 [동명에게]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동명이 달아나다 남쪽의 掩淲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가 되어 동명이 건널 수 있었다.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추격하던 병사들은 건널 수 없었다. 왕이 [되어] 夫餘에 도읍하니, 北夷에 夫餘國이 있게 되었다. 동명의 어머니가 처음 임신하였을 때,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태어난 후 버려졌으나 돼지와 말이 기운을 불어넣어 살게 하였다. 장성하자 왕이 죽이고자 하였으나,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 天命이 죽음을 막으니[不當, 돼지와 말이 목숨을 구한 것이다. 마땅히 왕이 [되어] 부여에 도읍할 만하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도운 것이다. (『論衡』 2, 「吉驗篇」)⁷⁷⁾

77)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王欲殺之。婢對曰，‘有氣大如鷄子，從天而下，我故有娠。’後產子，捐於豬溷中，豬以口氣噓之，不死。復徙置馬欄中，欲使馬藉殺之，馬復以口氣噓之，不死。王疑以爲天子，令其母收取，奴畜之，名東明。令牧牛馬。東明善射，王恐奪其國也，欲殺之。東明走，南至掩淲水，以弓擊水，魚鼈浮爲橋，

『논형』은 성립 시기를 보통 서기 70~80년대로 추정한다.⁷⁸⁾ 어떤 이야기가 말로 전해질 때는 유동적으로 변화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록한 후에는 의도를 가지고 수정하지 않는 한 크게 바뀌지 않고 전해진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사료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동명(Tümen)’의 위상은 널리 퍼져 있었고⁷⁹⁾ 처음 명문화된 것이 부여의 동명신화였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해당 이야기를 공유한 집단이면서 한자를 활용하는 문화권에서는 『논형』 속 이야기를 ‘최초의 이야기’의 기원이라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한자의 영향을 깊게 받았던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는 부여 동명신화가 원초처럼 된 것이다. 즉 그 지역 사람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시조이자 기원이 ‘부여의 동명’이 된 셈이다. 이러한 동명신화의 일부 요소는 하늘의 우박을 삼킨 뒤 임신하여 낳았다는 鮮卑族 檀石槐 등 유목 민족에게도 수용되었다고 한다.⁸⁰⁾

東明得渡. 魚鼈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東明之母初妊時, 見氣從天下. 及生, 棄之, 豬馬以氣吁之而生之. 長大, 王欲殺之, 以弓擊水, 魚鼈爲橋. 天命不當死, 故有豬馬之救命. 當都王夫餘, 故有魚鼈爲橋之助也.”

78) Michael Loewe ed., *Early Chinese Text : A bibliographical Guide*,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1993, pp.309~312

79) 유라시아의 여러 국가와 부족이 혈통을 떠나 흉노의 후예를 자처하며 국가를 세웠다는 점(강인욱, 「부여와 백제 : 신화에서 실체적 고고학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17)』, 한성백제박물관, 2020, 90~91쪽)도 참조된다.

80) 중국 고문헌에 나타나는 시조 신화를 확인한 결과, 북방 유목국가에서도 부여 동명신화의 기본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는 경우가 보인다고 하며, 동명=주몽이라는 인식은 고구려와 주변 세력에 의해 부여가 쇠퇴·소멸하며 동명 신화가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신격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개된 결과라고 언급한 견해가 있다(박승범, 「夫餘國의 신화적 변동과 東明神話의 시·공간적 推移」, 『한국사학보』 37, 2009, 487~489쪽).

여하튼 중앙유라시아 민족들 사이에 중요한 인물로서 공유되던 동명은 『논형』의 기록을 계기로 부여의 동명이 대표가 되고, 동명의 위상이 부여의 위상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부여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위상이 있었던 점은 부여라는 명칭을 앞서 ‘夫餘之別種’이라는 표현처럼 사료에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⁸¹⁾ 심지어 부여가 멸망한 지 한참 뒤인 11세기에 편찬된 『신당서』에도 北扶餘出自를 외치는 達末婁가 확인된다.⁸²⁾ 실제 종족적으로는 관련이 낮은데도⁸³⁾ 기록에는 북부여 출자라 기록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당시 ‘부여’라는 명칭은 부여가 멸망한 이후에도 사용될 만큼 대표성이 있었다.

이러한 부여의 위상은 3~4세기 前燕과의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F-1. 武帝 때 자주 조공하러 왔는데, 太康 6년(285)에 이르러 慕容廆에게 襲破되어 그 왕 依廬는 자살하고, 자제는 沃沮로 달아나 보전하였다. 황제가

81) 부여가 사료에서 예맥보다 정체성이 뚜렷하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견해가 있다(김기섭, 「부여족의 분산과 이동」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8, 65쪽).

82) 『新唐書』 권220, 達末婁, “達末婁自言北扶餘之裔, 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 因居之.”

83) 달말루는 『魏書』에 豆莫婁라고 나오며, 옛 북부여 땅에 있다(豆莫婁國… 舊北扶餘也… 或言本穢貊之地也)고 하였으나, 언어는 室韋國, 庫莫奚國, 契丹國과 같다(室韋國, … 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둔황 문서 내용 중에 거란과 吐谷渾의 언어와 거의 일치한다는 언급이 있다. 토욕혼은 모용선비의 갈래이므로 동부 선비어와 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언어들은 모두 東胡계의 언어에 속하며, 여기에는 탁발선비어도 포함된다(張久和, 북방사 연구팀 옮김, 『몽골인 그들은 어디서 왔나?』, 소나무, 2009, 74쪽; 강준영, 「모용선비(慕容鮮卑) 언어 연구」 『東洋學』 85, 2021, 2쪽). 게다가 해당 지역에서 부여나 옥저계 문화가 녹아 있는 봉림 문화는 6세기에 들어서면서 소멸하고, 두막루가 존재할 시점과 맞물려 말갈계 문화가 확인된다(강인옥, 「三江平原 滾琿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 2015, 135~139쪽).

조서를 내려 말하길, “부여왕은 대대로 충효를 지켰으나 사악한 오랑캐[惡虜]에게 멸망되었으니, 심히 가엽게 생각한다. 만약 그 유족으로 [부여를] 復國할 자가 있으면 마땅히 방책을 내어 [나라를] 存立시켜라.” 하였다. … 이듬해, 夫餘後王 依羅가 [사자를] 보내 [何]龕에 이르러 … [의]라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 (『晉書』 卷97, 列傳 第67, 東夷 夫餘國 조)⁸⁴⁾

F-2. 燕王 [慕容]皝이世子 儁을 보내 慕容軍, 慕容恪, 慕容輿 세 장군과 1만 7천 기병을 거느리고 부여를 습격하게 하였다. … 마침내 부여를 공략하고 그 왕 玄 및 부락 5만 여구를 노획하여 돌아왔다. 모용황이 현을 鎮軍將軍으로 삼고 딸을 처로 삼게 하였다. (『資治通鑑』 권97, 晉紀 19, 永和 2년(346) 정월 조)⁸⁵⁾

F-3. 무인, 燕 散騎侍郎 餘蔚이 부여와 고구려 및 上黨의 質子 5백 여인을 이끌고(… 연은 아마 병사를 보내 상당에 둔영[戍]을 두고, 그 子弟를 취하여 鄴에 머무르게 하여 質로 삼은 듯하다. 여울은 부여의 왕자였으므로 몰래 여러 길자를 거느리고 문을 열어 秦兵을 받아들인 것이다.), 밤에 鄴의 北門을 열어 진병을 받아들이니, 燕主 暉와 上庸王 評, 樂安王 臧, 定襄王 淵, 左衛將軍 孟高, 殿中將軍 艾朗 등이 龍城으로 달아났다. (『資治通鑑』 권102, 晉紀 24, 太和 5년(370) 11월 조)⁸⁶⁾

84) “武帝時 頻來朝貢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帝爲下詔曰 ‘夫餘王世守忠孝 爲惡虜所滅 甚愍念之 若其遺類足以復國者 當爲之方計 使得存立’ … 明年 夫餘後王依羅遣詣龕 … 羅得復國”

85) “燕王皝遣世子儁帥慕容軍慕容恪慕容輿三將軍萬七千騎襲夫餘 … 遂拔夫餘虜其王玄及部落五萬餘口而還 皝以玄爲鎮軍將軍 妻以女”

86) “戊寅 燕散騎侍郎餘蔚帥扶餘高句麗及上黨質子五百餘人 (… 燕蓋遣兵戍上黨 取其子弟留於鄴以爲質 餘蔚 扶餘王子 故陰率諸質子開門以納秦兵) 夜 開鄴北門納秦兵 燕主暉與上庸王評樂安王臧定襄王淵左衛將軍孟高殿中將軍艾朗等奔龍城”

F-1은 모용외에 의해 멸망한 부여를 西晉이 회생시키는 기록이다. 모용외의 기세가 범상치 않았던 것이 큰 이유이겠지만, 왕이 죽고 망한 나라를 유족을 구하여 다시 회복시킨다는 건 그만큼 서진에서 부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F-2와 F-3을 보면, 전연도 부여왕을 質子로 데려와 사위로 삼은 뒤, 멸망할 때까지 부여 왕족을 통해 주변 민족을 제어하기도 했던 것 같다. 유목 습성을 가진 집단에서 누군가를 사위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으므로, 당시 전연에서 부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⁸⁷⁾ 전연의 멸망 후에도 부여 출신 유민들의 활약이 후연, 남연 등에서 이어지는 점도 참고가 된다.⁸⁸⁾ 이상의 사례들도 부여라는 존재 자체가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부여가 쇠락해졌음에도 동명 보유국으로 유의미한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3~4세기, 정작 부여를 復國한 서진은 정세가 혼란스러워져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고 중국 동북 지역은 명목상으로나마慕容鮮卑의 전연(東夷校尉)에게 맡긴다. 백제는 서진이 郡 중심에서 州 중심으로 정책을 변경하며 낙랑·대방군을 외면한 3세기 후반 武帝대부터, 東晉과 직접 교섭을 진행하는 372년 사이에 동이교위 역할을 하던 전연과 교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⁸⁹⁾ 이때 전연에는 부여의 質子를 비롯하여 부여 유민이 많이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꽤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다[F-2]

87) F-3과 관련하여 여울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이 부여와 전연의 관계, 부여 왕자라는 신분에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부여가 전연에 종속된 상태에서도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2018, 207~209쪽)고 하였다.

88) 여호규, 「百濟의 遼西進出設 再檢討 : 4세기 후반 扶餘系 人物의 동향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91, 2001

89) 西晉의 이민족 정책과 백제와 전연 동이교위의 교섭에 관하여서는 '정지은, 「3~4세기 백제(百濟)의 대중(對中)교섭과 동이교위(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2019' 참조.

[F-3].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의 건국신화에 삽입된 동명신화는 고구려에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작고 백제에서는 해부루 신화가 선행하다 동명신화가 삽입되었다. 백제 내 동명신화 정립은 부여 유민의 존재감이 작지 않던 전연과 백제의 교섭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⁹⁰⁾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명, 그리고 부여의 상징성은 중국 동북 지역의 주변 세력에게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 역시 부여와의 친연성을 해부루보다 동명과 연결한다면, 그 자체로 전연을 비롯한 중국 동북 지역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서진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⁹¹⁾

그리고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당시 중국 동북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일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⁹²⁾ 3~4세기에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자신의 기원을 한자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민족 혹은 국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⁹³⁾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慕容鮮卑이다. 모용선비의 '모용'은 莫護跋이 모요관을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였다.⁹⁴⁾ 이 '모용'의 시작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240년대 요동의 공

90) 이와 관련하여 3~4세기 서진의 남하와 낙랑·대방군이 사라진 후 중국 왕조와의 교류를 위해 遼西 지역을 동진으로 향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며 부여계 집단과 연결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재윤,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 등).

91) 백제가 있던 마한 지역은 漢代부터 천여 명이 '印綬衣幘'을 소지할 만큼 중국의 왕조와 교섭에 적극적이었다(정지은, 「3~4세기 백제(百濟)의 대중(對中)교섭과 동이교위(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2019, 144쪽). 어쩌면 부여의 유민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도 생각했는지 모른다.

92) 정재윤, 「중국 요서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2018, 117쪽.

93) 『三國志』 烏桓, “氏姓無常, 以大人健者名字爲姓”

94) 『晉書』 卷108, 載記 第8 慕容廆, “曾祖莫護跋 魏初率其諸部入居遼西 從宣帝伐公孫氏有功 拜率義王 始建國於棘城之北 時燕代多冠步搖冠 莫護跋見而好之 乃斂髮襲冠 諸部因呼之爲步搖 其後音訛 遂爲慕容焉”

손씨를 토벌하면서 막호발이 率義王에 봉해지며 중국의 왕조와 본격적으로 책봉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모용씨를 사용한 가장 앞 시기의 인물인 慕容涉歸(?~283)는 그의 손자이다. 그런데 모용섭귀는 奔洛韓이라고 불리었다.⁹⁵⁾ 또 모용섭귀의 아들 모용외 역시 奔洛瑰 또는 若洛魔라고 불렸다.⁹⁶⁾ 이를 보면 이즈음 본래 가지고 있던 이름과 별개로 쥘과의 교섭을 위해서 한자 姓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의 특징이자 선조가 좋아했던 보요관에서 성을 따온 모용선비처럼, 그들의 후손인 토욕혼 역시 葉延(재위 329~351)이 선조 혁락한을 언급하며 성씨를 정하고 있다.⁹⁷⁾ 蠕蠕의 옥구려씨 또한 4세기 초의 조상 木骨閭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⁹⁸⁾ 且渠蒙遜(368~433, 재위 401~433)의 저거도 조상의 관직과 관련이 있다.⁹⁹⁾ 이 밖에도 3세기 중엽 乞伏·禿髮·拓跋 등도 출신 지역 혹은 집단 명칭을 성으로 하였고, 흉노의 呼衍, 선비의 蔚遲도 마찬가지이다. 또 선비 일파인 萬俟씨도 東晉 때 중원으로 이동하면서 부락의 이름을 성으로 사용하였다.¹⁰⁰⁾

95) 『魏書』 권101, 吐谷渾, “吐谷渾, 本遼東鮮卑徒河涉歸子也. 涉歸一名奔洛韓, 有二子, 庶長曰吐谷渾, 少曰若洛魔.”

96) 『晉書』 卷108, 載記 第8 慕容廆, “慕容廆字奔洛瓌, 昌黎棘城鮮卑人也.”

97) 『晉書』 권97, 열전 제67, 四夷, 吐谷渾, “延曰 ‘自義皇以來 符命玄象昭言著見而卿等面牆 何其鄙哉! 語曰 『夏蟲不知冬冰』 良不虛也’ 又曰 ‘禮云公孫之子得以王父字爲氏 吾祖始自昌黎光宅於此 今以吐谷渾爲氏 尊祖之義也’ 在位二十三年卒 年三十三 有子四人 長子辟奚嗣”

98) 『魏書』 권103, 열전 제91, “蠕蠕, 東胡之苗裔也, 姓郁久閭氏. 始神元之末, 掠騎有得一奴, 髮始齊眉, 忘本姓名, 其主字之曰木骨閭. 木骨閭者, 首禿也. 木骨閭與郁久閭聲相近, 故後子孫因以爲氏. 木骨閭既壯, 免奴爲騎卒. 穆帝(?~316)時, 坐後期當斬, 亡匿廣漠濱谷間, 收合逋逃得百餘人, 依紇突鄰部.”

99) 『宋書』 권98, 열전 제58, 胡, “大且渠蒙遜, 張掖臨松盧水胡人也. 匈奴有左且渠·右且渠之官, 蒙遜之先爲此職, 羌之酋豪曰大, 故且渠以位爲氏, 而以大冠之.”

100) 閔載泓, 「중국인의 성씨(姓氏)와 시대별 이름 짓기(命名)의 특징」 『중국문화연구』 15, 2009, 585~586쪽; 정재운,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

부여라는 성 역시 이즈음 등장하였다. 3세기 말[F-1]까지는 부여라는 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반해 346년[F-2]의 부여왕 현은 성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370년[F-3] 여울처럼 한자식이다. 부여 멸망 후 기록이 없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현이 부여를 딴 성을 사용한 최초의 인물일 확률이 높다.¹⁰¹⁾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 370년 이전에 부여씨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다.¹⁰²⁾ 백제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점도 372년이다.¹⁰³⁾ 이처럼 부여씨는 3~4세기 유목 민족의 성과 유래가 비슷하며,¹⁰⁴⁾ 상징성 있는 '부여'라는 명칭을, 주변 민족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은 역시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만하다.¹⁰⁵⁾

후대 기록이지만 일본 『新撰姓氏錄』을 보면, 천황 혹은 중국과 한국 지역에서 권위 있던 인물을 시조로 세우고 姓과 연결 지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그중에서 백제계는 도모왕[동명]이 가장 많고, 뒤이어 비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순이다.¹⁰⁶⁾ 그런데 마침 이 왕들의 재위 때(4세기)는

체」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 277쪽.

101) 정재윤,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 278쪽.

102) 여씨의 사용은 전연 사민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103) 『晉書』 권9, 簡文帝, 咸安 2년 “六月, 遣使拜百濟王餘旬爲鎮東將軍, 領樂浪太守.”

104) 부여씨 역시 출신 또는 특징을 자신의 성으로 삼은 것이며, 復姓이기도 하다. 왕성 외에도, 사료 속 백제 인명을 보면 복성을 취한 인물을 많이 볼 수 있다.

105) 부여씨 외에도 후대지만 黑齒常之의 黑齒 역시 연고지에서 따왔는데, 역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6) 『新撰姓氏錄』에는 도모왕(동명), 비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을 비롯하여 사반왕, 진사왕, 전지왕, 비유왕, 문주왕, 말다왕(동성왕), 무령왕, 명왕(성왕), 혜왕, 의자왕 등이 계보에서 확인되는데, 『삼국사기』 계보상 1~4대(온조, 다루, 기루, 개루)와 일명 고이계인 8~10, 12대(고이, 책계, 분서, 계)는 확인할 수 없다. 한자로 음차한 것인 만큼 다른 글자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즉위하자마자 고이왕에

백제가 국가를 정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시기으로써 이미 백제의 시작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목받은 시기이다. 특히 근초고왕 즈음하여 중국계 유이민의 유입 이후 역사서[書記]를 만들며 출자의식이 성립하고 중국과의 통교에 부여씨를 단성화한 여씨를 사용하였다는 견해와¹⁰⁷⁾ 역시 근초고왕 시기 중국 문서행정 도입[書記]과 함께 부여씨의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견해를¹⁰⁸⁾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양자는 사료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포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대무신왕[大解朱留王]과의 친연성을 드러내어 계승의식을 드러낸 소수림왕[小解朱留王]¹⁰⁹⁾ 이후부터 북부여출자설이 당대 기록에서 확인되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즉, 건국신화(또는 출자)는 국가체제 정비와도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율령, 문서 행정뿐만 아니라 왕실 계보, 시조, 왕호 등을 포함한다. 대해주류왕과 소해주류왕은 백제의 肖古王·仇首王과 近肖古王·近仇首王을 떠오르게 한다. 어쩌면 근초고왕은 소수림왕처럼 초고왕과의 친연성 내지는 정당한 계승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왕호를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근초고왕 역시 소수림왕처럼 문서 행정뿐만 아니라 율령, 왕실 계보, 시조 등과 관련한 정책을 펼쳤다고 보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료 속에 왕족의 성이 해씨, 여씨 외에도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초기 백제에서 성을 새롭게 정한다는 것이 엄격하지

계 양위하였다는 사반왕도 확인이 되는데 특정 라인만 누락된 점이 흥미롭다.
 107) 정재윤, 「백제의 부여 계승의식과 그 의미」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8, 198쪽.
 108) 오택현,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0, 28쪽.
 109) 임기환,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25쪽.

는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 후대지만 『신찬성씨록』 속 백제계 유민의 백제왕 계승의식은 백제계 유민의 사상이 녹아 있는 기록이다.¹¹⁰⁾ 여기에 많이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백제 내에서의 존재감이 상당하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해부루 신화와 동명신화에서 모두 비류와 온조가 형제로 나오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한 것을 종합하면, 조금 억측일 수 있지만, 근초고왕은 내부적으로는 백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비류[왕]을 아버지로 두고, 초고왕을 계승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동명의 부여를 성으로 삼아 활용한 것이다.¹¹¹⁾ 역성혁명이 아니었기에 해부루 신화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은 것이 아닐까.

국가의 시조와 건국신화가 변화하거나 바뀌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상황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록의 부족으로 세세한 일면을 증명할 수 없고 알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현전하는 기록을 보았을 때 적어도 백제가 4세기에 시조와 건국신화를 새롭게 정비하였고, 그 이유 중 하나와 그 과정이

110) 『新撰姓氏錄』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씨족이 제출한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일 인물을 시조로 올리더라도 한자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계보와 세수가 비슷하여 어느 정도 정리된 왕족 계보를 당시 유민이 공유하였다고 생각된다.

111) 사료가 부족하여 본문에서 언급하지 못하였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구려와 달리 건국신화에 두 이야기가 부드럽게 융합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몇 가지 가설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다. 억측이지만, 앞서 각주 47)에서 해씨를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 왕위 계승 범위를 좁히는 과정(예를 들어 부자 상속)에서 부여씨를 선택하며, 백제 내에 위상이 있던 비류와 해부루 신화를 여전히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혹은 扶餘와 北扶餘라는 글자에서 같은 계통으로 생각하여 필요성이 낮아 성씨와 달리 동명신화의 수용은 조금 늦게 하여 후대에 신화가 영결될 가능성, 『삼국사기』에서 백제왕의 이름을 소개하는 패턴이 개로왕부터 바뀌는 점이나 이때 한성이 함락되어 대부분이 파괴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웅진 이후 새로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시조 동명신화를 가다듬었을 가능성, 해씨 외에도 여러 세력의 이야기가 후대에 섞였을 가능성 등이다.

以上과 같았다고 생각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가 4세기에 부여 동명신화와 부여씨를 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의 여러 건국 신화 내용을 확인하였다. 주몽이 온조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은 동명성왕이란 명칭 때문으로, 동명성왕과 동명의 이름이 같아 동일인으로 생각한 후대 사람들의 인식이 고려시대 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국사기』에 백제와 고구려의 신화가 줄거리 상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 인물에 대한 뉘앙스가 다르고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다른 글자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백제의 건국신화 이야기는 해부루 신화가 먼저 주류였다가 이후 동명신화로 변하면서 두 종류가 전해졌던 것 같다. 『삼국유사』에 백제왕의 성이 ‘扶餘’씨와 ‘解’씨가 등장하는데, 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한 건국 신화와 왕의 성이 모두 두 종류라는 점에서 신화와 성의 연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해씨는 해부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부여씨는 동명신화에 직접적인 인물과는 관계가 없다.

백제가 선택한 ‘부여’라는 성은 오히려 3~4세기 중국 동북 지역의 민족들이 성을 택한 방식과 같다. 같은 방식의 성 표현과 이런 성을 사용하던 지역과의 교섭 및 그곳에서의 부여 유민의 활약, 마지막으로 신화와 성의 연동을 생각하면, 백제가 부여씨와 동명신화를 채택한 것이 3~4세기 무렵 행하였던 교섭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동명신화

는 백제·고구려만이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을 넘어 중앙 유라시아 민족 사이에서 공통되는 이야기이자 부여계의 신화였으므로, 당시 중국 동북 지역 및 중원 왕조에 위상이 있던 부여와의 친연성을 강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료가 없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류왕, [사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으로 이어지는 4세기, 특히 근초고왕 대에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백제의 이러한 부여 계승은 이후 ‘南扶餘’로 국호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백제와 부여가 동일하게 인식되며,¹¹²⁾ 이전까지는 백제 관련 기록 외의 부여를 대부분 ‘夫餘’로 기록한 것과 달리 이후로는 백제 관련 사료만이 아니라 모든 사료에서 ‘扶餘’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7.10. 투고 / 2023.07.31. 심사완료 / 2023.08.10. 게재확정)

112)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23년 3월 조,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吉士老等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 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 難以面賜 劫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餘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Abstract]

The Founding Myth of Baekje and Buyeo clan in the 4th Century

Jeong, Jee-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ounding myth of Baekje in the 4th century and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time to reveal that the founding myth of Baekje and the establishment of Buyeo clan, royal family name, are an extension.

Commonly, the founding myth is associated with the identity of the state. Buyeo and Goguryeo are mentioned as origin of Baekje's founding my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historical records, the perception that Onjo was the son of Dongmyeong seems to be a perception of the Goryeo Dynasty.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Bu(夫) and Bu(扶) shows that Baekje and Goguryeo independently accepted the myth of Dongmyeong in Buyeo.

In Baekje, the myth of Haeburu and the myth of Dongmyung are handed down as founding myths, and Hae(解) clan and [Bu(扶)Yeo(餘) clan are mentioned as the royal family name of Baekje. In the case of Hae clan, it is likely to be a surname derived from Haeburu of the myth of Haeburu. Dongmyung's surname is not Buyeo,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yal family name and the founding myth can be confirmed in that the myth of Dongmyung is one of Buyeo.

It is agreed by most researchers that the myth of Haeburu precedes

the myth of Dongmyung. Baekje first accepted the myth of Haeburu as its founding myth, and took Hae clan as the royal family name. Later, for some reason, it was changed to Buyeo and accepted the myth of Dongmyung. That was because of the advant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group did not change, the myth of Haeburu did not disappear and remained in the form that is now passed down.

At that time, Buyeo and Dongmyeong(called Tümen) had a widespread status in northeastern China. When Former Yan(前燕) took the king of Buyeo as his son-in-law and Buyeo clan rose to high-ranking government posts in Later Yan(後燕) and Southern Yan(南燕), it can be seen that Buyeo's status was high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at that time.

Also, around the 3rd and 4th centuries, nomadic groups, including Former Yan, began to create family name by converting their origins into Chinese characters for the purpose of negotiating with Jin(晉). The family name 'Buyeo' also appeared at this time, and it is in line with the one of the nomadic group. From this point of view, Baekje adopted Buyeo as a royal family name and accepted the myth of the Dongmyeong in its relationship with northeastern China in the 4th century.

□ Keyword

Baekje, Buyeo, 4 century, founding myth, Tumen myth, Dongmyeong, Haeburu, Hae clan, BuYeo clan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진서』 『삼국지』 『주서』 『위서』 『북사』 『양서』 『남제서』 『십육국춘추』 『십육국춘추집보』 『자치통감』 『구당서』 『신당서』 『후한서』 『한원』 『수서』 『신찬성씨록』

「광개토왕릉비문」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노중국, 『백제정치사』, 일조각, 2018.

동북아역사재단,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8.

동북아역사재단, 『초기 백제사의 제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18.

朴性鳳, 『東夷傳 百濟關係 資料』(『韓國研究資料叢刊』제7집), 慶熙大傳統文化研究所, 1985.

이장웅, 『신화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17.

張久和, 북방사 연구팀 옮김, 『몽골인 그들은 어디서 왔나?』, 소나무, 2009.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3.

크리스토퍼 백워드, 이강한·류형식 옮김, 『중앙유라시아 세계사-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 소와당, 2014.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백제는 부여를 계승하였나(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17)』, 한성백제박물관, 2020.

오택현,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20.

이승호, 『夫餘 政治史 研究』,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8.

이지희, 『고구려와 탁발선비 시조신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2.

- 강인옥,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 2015.
- 강준영, 「모용선비(慕容鮮卑) 언어 연구」, 『東洋學』 85, 2021.
- 강진원, 「백제 仇台廟의 성격과 부상 배경」, 『동서인문학』 56, 2019.
- 高柄翊, 「中國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出版部, 1970.
- 김기섭, 「백제 국가형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
- 金杜珍, 「百濟 建國神話의 復元試論」, 『국사관논총』 13, 1990.
- 김병근, 「中國 史書에 나타난 百濟 始祖觀과 始國者 仇台」, 『한국고대사 연구』 46, 2007.
- 김병근, 「記錄에 나타난 百濟 始祖 및 建國者의 史的 位相과 實態」, 『백제 연구』 47, 2008.
-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白山學報』 3, 1967.
- 김성한, 「백제의 건국과 구태」, 『역사학연구』 56, 2014.
-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1981.
- 盧明鎬, 「百濟 建國神話의 原形과 成立背景」, 『백제연구』 20, 1989.
- 노중국,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한국사론』 4, 1978.
- 노중국, 「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百濟의 成長」,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閔載泓, 「중국인의 성씨(姓氏)와 시대별 이름 짓기(命名)의 특징」, 『중국문화연구』 15, 2009.
- 박기범,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북부여조 인용에 대한 분석을 실마리로 하여」, 『동북아역사논총』 34, 2011.
- 박승범, 「夫餘國의 신화적 변동과 東明神話의 시·공간적 推移」, 『한국사학보』 37, 2009.

- 박윤선, 「백제 성씨문화의 이해」, 『백제학보』 29, 2019.
- 박현숙, 「백제 建國神話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 서혜숙, 「켈트 신화와 한국 신화의 비교 연구: 영웅 쿠홀린과 주몽을 중심으로」, 『한국에이즈저널』 34, 2010.
- 신동하,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引用資料에 관한 一考」,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 여호규, 「百濟의 遼西進出設 再檢討: 4세기 후반 扶餘系 人物의 동향과 관련하여」, 『신단학보』 91, 2001.
- 오은영, 「알퍼므쉬와 주몽신화의 영웅신화적 요소 비교 연구」, 『중동문제연구』 10-2, 2011.
- 윤용구,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 14, 1998.
- 윤용구, 「仇台의 백제건국기사에 대한 재검토」, 『백제연구』 39, 2004.
- 이근우, 「고대 일본의 씨성 개념과 『신찬성씨록』」, 『한일관계사연구』 64, 2019.
- 이기동, 「百濟 王室交代論에 대하여」, 『百濟研究』 12, 1981.
- 이도학, 「百濟初期史에 관한 文獻資料의 檢討」, 『한국학논집』 23, 1993.
- 이병도, 「三韓門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1936.
- 이성규, 「韓國古代國家의 形成과 漢字受容」,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 이장웅, 「백제 시조 구태·비류 전승의 성립과 고구려·공손씨의 관계」, 『백제문화』 55, 2016.
- 이종태, 「百濟 始祖仇台廟의 成立과 繼承」, 『한국고대사연구』 13, 1998.
- 임기환, 「百濟 始祖傳承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고찰」, 『백제연구』 26, 1998.
- 임기환,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 정재윤, 「구태 시조설의 성립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
- 정재윤, 「중국 요서(遼西) 지역에 보이는 백제의 실체」, 『동북아역사논총』 61, 2018.
- 정지은, 「3~4세기 백제(百濟)의 대중(對中)교섭과 동이교위(東夷校尉)」, 『역사와 현실』 112, 2019.
- 조영광, 「고구려·부여계 유이민의 남하와 백제 부여씨의 등장」, 『선사와 고대』 53, 2017.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 3, 1976.
- 최원오,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허저족의 이마칸 문학 비교」, 『한민족 문화와 통구스족』, 동북아역사재단, 2019.
- 최원오, 「동북아 소수민족의 '메르겐 문학'의 관점에서 본 고구려 <주몽신화>의 신화적 성격」, 『몽골학』 64, 2021.
- Michael Loewe ed., *Early Chinese Text : A bibliographical Guide*,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1993.
- 園田俊介, 「北魏・東西魏時代における鮮卑拓跋氏(元氏)の祖先伝説とその形成」, 『史滴』 27, 2005.